

【서식 3】 지원자용 자기소개서

관리 번호	
----------	--

자기소개서

지원학교	광주고등학교
소 속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직 위	과장
성 명 (한 자)	김 선 성 (인/서명) (金 善 聖)

자기소개서

1 배움..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있다

○ 아카시아 동산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배우다.

1981년 고등학교에 들어와 학습의 어려움에 부딪혀 방황할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7교시 전 학년이 참여하는 독후활동시간은 읽고 쓰기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글귀는 세상에 대한 도전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낮은 학습력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이 세상을 벗어나 보자는 강한 의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도서대출봉사를 자원하면서 독서의 즐거움과 학력향상의 기쁨을 동시에 채웠습니다. 독서로 다져진 역량으로 대학에서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고, 언론인으로 발을 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늦깎이.. 설렘을 안고 교단에 발을 내딛다

1999년 9월에 만 33세의 늦은 나이에 ○○○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교단에 첫발을 내딛으며 “즐거운 수업, 행복한 학교”를 교직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학급에서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뛰고 공부하면서, 교사가 학교 밖까지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다한다면 학생, 그리고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질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한다’는 인재시교(因材施教)와 ‘덕을 행하고 남는 힘이 있다면 그때 공부하라’는 행유여력 즉이학문(行有餘力則以學文)의 공자의 말씀을 교육적 지표로 삼고 있는 저는 교육자로서 성적과 경쟁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아이들의 꿈과 적성을 고려한 가르침과 지식교육보다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 성장..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몸을 낮추다

○○○학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첫 가정방문에서 만난 조손가정의 할머니는 손수 지은 방울토마토를 건네며 물과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심과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열정

으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로 ‘학급 야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2개반씩 학생과 교사가 함께 프로그램 회의를 갖고, 반별 특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의식과 진솔한 마음 열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 인근에 거주하여 매번 참여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한 남학생이 편지를 건네며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큰 행운입니다.”라는 말은 앞으로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퉁은 성장을 보면서 비고츠키 학자들의 개념 ‘공유된 활동’을 통한 ‘관계 맺음’이 다른 어떤 교육활동보다 의미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 선생님.. ‘나눔’ 에서 성장하는 나를 만나다

○ 혁신.. 선구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필요하다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재부임하여 경쟁과 실적위주의 입시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질을 찾아 행복한 미래를 그려주고 싶은 마음에 혁신학교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교육적 변화의 어려움에 고민하던 중, 광주 첫 혁신고등학교가 개교하여 배려와 나눔, 배움과 성장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공교육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 자발성과 집단지성에 기초한 노력으로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체계를 하나씩 다질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실천함에 있어 개교 업무의 가중으로 동료성에 기반한 교육활동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독서연구회를 조직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독서토론 등 교사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학교 만들기 위한 ‘동반자’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 진로.. 외로운 곳에서 ‘함께’의 배움을 키우다

진로상담교사로 활동한 지 8년째. 알 수 없는 미래를 진단하며 아이들의 꿈을 찾고 대학입시를 위해 밤마다 남아 상담을 통해 준비해주고 예측하는 ‘점쟁이’ 같은 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 한명 밖에 없는 동료 교사들은 공사립을 떠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광주진로진학지원단의 발전과 함께 진로와 진학과 관련한 캠프 및 박람회 등을 거뜬히 성공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대학입시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받

빠르게 습득해야 하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뒷걸음치게 되는 진로전담교사의 특수성은 ‘나눔’이 바로 ‘성장’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전 혁신학교에서 배운 초심으로 돌아가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상호 인정과 ‘나눔’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눔의 시작은 자료개발, 상담면접, 수업탐구 등 다양한 연구회를 통한 ‘관계 맺기’로 성장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학교내 교사들의 진로역량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진로특강 봉사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3 지원동기 : 이런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 공교육 모델학교로서의 광주형 미래학교

‘학교 안에서 성장하다’ 미래정보화사회는 지식의 수명과 변화 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서면 ‘꿈, 감성, 이야기’가 중시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고 합니다. 즉 미래사회는 꿈과 감성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회가 될 것이며,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민주적 삶의 장으로서 학교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는 수업에서의 소통과 나눔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미래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의 교육공동체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 학교구성원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담보하는 학교

‘통아지 않으면 痛이다’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의 핵심요소로서 의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비전과 교육철학을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공유하고 추진하며,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사들의 자발성을 일으켜야 합니다. 교사들의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은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한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균질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배경과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경쟁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통해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 들어올 때 보다 나갈 때 더 ‘행복한 학교’

‘꿈꾸는 즐거움에 나눔을 더하다’ 진로교육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학교를 진로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들의 삶터로 인정한다면, 꿈의 출발점은 학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인성 발달에 기여하는 학교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높은 교육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학교’는 학생 한명 한명의 꿈을 존중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삶의 목표를 설계하는데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배움의 과정에서 ‘나눔’의 실천은 의사소통이나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끌어오는 창의적 사고, 발산적 사고,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교과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지역사회가 생각의 나눔, 배움의 나눔, 성장의 나눔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4 학교경영철학: 꿈과 도전을 키우겠습니다.

○ 자공고 모델학교로서의 광주형 미래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지식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정답 없는 창의성 교육, 잠재된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좀 더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탐구심 있고 넓은 지식과 배려의 마음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세상을 향해 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배움에 대해 자신만의 의문과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집어 넣는’ 수업에서 ‘끄집어 내는’ 수업으로 한 학생도 자신의 역량을 포기하지 않는 행복한 광주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체계적 진로교육으로 한명 한명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교사로 재직시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12년여에 걸친 일반고 진로진학 지도와 커리어넷 진로상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상담, 광주진로진학지원단에서의 진로진학박람회 운영 등 폭넓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입학 때부터 3개년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능력과 자기계발,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광주고등학교로 만들겠습니다.

○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공유하고, 교실수업에서 활발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 경쟁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추구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면서 누구나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와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더 풍부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옛 명성을 되찾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되고 싶습니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고는 4·19 민주혁명의 발상지이자 6·25호국영웅 명비가 있는 정의와 애국의 산실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움과 실천이 하나되는 ‘학행일치’의 교훈 아래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의 혁신으로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장 선도적인 자율형 공립고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